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The Relations of Mothers' Self-Esteem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to Child's Self-Esteem

이 인 영*
Lee, In Young
이 희 자**
Lee, Hee Ja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relations among mothers' self-esteem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to children's self-esteem,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then to inquire into how these relationships relatively contribute to children's self-esteem.

Subjects were 206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Anjang. Two types of instruments were used in this study. To measure the children's and mothers' self-esteem, SEI(Self-Esteem Inventory) was to used. To measure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levels,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Scales" was constructed by the researcher. The statistical procedures used for collected data analyses were correlation, one-way ANOVA, multiful regress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

1.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mothers' self-esteem and children's self-esteem.
2. Also,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as revealed between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level and children's self-esteem.
3. The level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disclose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upon the mothers' self-esteem.
4. Mothers' level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affected children's self-esteem rather than the mothers' self-esteem.

* 명지대학교 가정학과

** 명지대학교 가정학과

I.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自我尊重感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oopersmith, 1981).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價値로서 자신이 행하는 일의 성공을 예견하는 수준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서봉연, 유안진, 1983). 한편, Waston 등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견디어 낼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자기가치감의 독립적인 평가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自我尊重感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였다(Waston & Lindgren, 1979). 이렇듯 自我尊重感은 인간의 행동과 적응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심리학자들로부터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즉, 自我尊重感은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 및 건전한 인성 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自己實現에 가장 중요한 要素 (Coopersmith, 1967; Medinnus, 1970)라고 할 수 있다.

自我尊重感의 발달에 대한 이론에는 反映校果와 模倣校果가 있는데, 反映校果(mirroring effect 또는 reflective effect)에 의하면 아동은 특히, 중요한 타인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自我尊重感이 발달한다 (Mead, 1934)고 한다. 이는 James를 시조로 하는 相互作用主義者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한편 Bandura로부터 대표되는 學習理論家들은 아동이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를 觀察, 模倣, 同一視 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自我尊重感도 모방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를 模倣效果(modeling effect 또는 imitative effect, Gecas, 1974)라고 한다.

이 두가지 압장은 自我尊重感 발달의 과정이 타인의 평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모델에 대한 동일시에 의한 것인지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타인의 혹은 모델로서 부모의 영향

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自我尊重感은 자기의식의 대두와 함께, 이미 취학 전에 그바탕이 형성되어 국민학교 저학년기의 아동은 자신에 대해 상당히 안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의 특성에 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며 특히, Erikson(1950)은 兒童後期가 自我尊重感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하였다.

促進的 意思流通(facilitative communication)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종의 助力的 意思流通으로서 이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Rogers(1962)는 부모-자녀관계를 助力關係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떤 助力的 人間關係(helping human relationship)경험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人性形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어머니의 反映과 評價를 전달받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模倣效果의 변인이 될 수 있는 어머니의 自我尊重感과 反映效果의 변인이 될 수 있는 意思流通이 각각 아동의 自我尊重感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들의 아동의 自我尊重感 발달에 관한 相對的 寄與度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自我尊重感의 概念 및 發達

Coopersmith(1967)는 自我尊重感을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重要한 評價로서 肯定的 또는 否定的 態度로 표현되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Rosenberg

(1965)는 自我尊重感を 전체적 의미로서 기술하고, 높은 自我尊重感은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거부하고 불만족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自我尊重感を 포괄적으로 개념화해서, '자신의 성취와 타인의 대우, 심지어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듯,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評價的·感情的 側面인 自我尊重感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理解的, 描寫的 태도인 自我概念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며, 자아개념의 형성 이전에는 자신을 자신 이외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自我認知 능력의 발달이 先行되어야 하는데, 가장 조잡한 형태의 자아인식이 형성되는 시기는 대략 2~3세경인 듯 하다(Bee, 1978; Johnson, 1978, Smart & Smart, 1973 김경연 1987 재인용). 또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전 조작적 사고단계 동안 유아는 신체적 자아를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 조작기 동안 인지능력의 발달에 힘입어 아동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Mussen 등(1984)은, 우선 아동은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형성된 자아개념의 단면에 대하여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평가를 내리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평가들이 모여서 自我尊重感이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自我尊重感은 9·10세경 뚜렷해지며 12세경까지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Jersild(1960)는 兒童의 自己評價가 重要他人의 兒童에 대한 評價에 依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아동의 自我尊重感 발달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社會心理學者들은 他人의 評價에

기초하여 自我尊重感이 발달된다는 반영이론을 주장하는 반면, 行動主義 心理學者들은 모델에 대한 同一視에 의해서 발달된다는 모방이론을 주장한다. 즉, 反映理論에서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곧 자기 평가를 이루게 되고, 模倣理論에서는 아동이 어떤 사람을 자기의 모델로 선택했느냐 하는 그 선택조건이 중요하며, 이 선택 조건에 따라 자기 강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강화빈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박춘심, 1976; 이미정, 1986 재인용). 한편, 아동의 自我尊重感에 대한 부모의 반영효과와 모방효과를 다룬 연구 결과들은 이 두 가지 효과 모두를 지지해 준다.

Helper(1958)는 중학교 2·3학년 아동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평가 점수와 아동의 자기평가 점수와 상관이 반영효과를 검토하였는데 유의있는 반영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높게 평가할수록 자녀도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Gecas, Calonico와 Thomas(1974)는 14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반영효과와 모방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반영효과가 모방효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방효과에 있어서 남아·여아 모두 모보다 부를 더 동일시하며 나이 어린 아동(14~17세)이 나이 든 아동(18~20세)보다 반영효과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방효과를 검토한 연구들 중 Tocco와 Bridges(1973)의 것은 어린 연령층인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모방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의미있는 상관이 검출되었다. 김경연(1985)은 국민학교 4·5·6학년 아동과 그 아버지에게 Coopersmith의 자아존중 척도를 사용하여 모방효과를 검토하였는데 역시 모방효과가 밝혀졌다. 즉, 아동의 自我尊重感 점수와 아버지의 自我尊重感 점수간의 상관이 유의 있는 수준이었다.

한편, 아동 후기는 시기적으로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는 기간이긴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화 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시기동안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서의 특징으로는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아동의 특권을 박탈하고 아동의 自我尊重感에 관련된 감정표현을 많이 하게 되며 아동의 죄의식을 고무시키고, 아동의 행동에 책임을 요구하는 진술을 많이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아동에 대한 통제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다가 아동에게로 전이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때 어머니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감독하고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고 부모와의 접촉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도록 아동을 안내하고 지지하는 기술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Santrock, 1989).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반영효과와 모방효과 모두에 대한 검증들이 제시되었지만, 모방효과와 반영효과를 각각 분리·측정하여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고 보여진다.

2. 父母-子女 間의 意思疏通

意思疏通(communication)이란 말의 어원은 “공동” 혹은 “공통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communis이다. 그 개념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측의 의식이나 태도 혹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박연호, 1981). 즉, 意思疏通類型的 개념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言語的 相互作用의 傳達方式에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 대한 연구는 이

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Ginott (1972; 이현주, 1990 재인용)는 대화의 유형을 무익한 대화와 새로운 대화로 구분되었으며 부모의 바람직한 대화 형태로서 새로운 대화를 주장하였다.

Berne의 상호 교류 분석(Transaction analysis)은 인간관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Berne에 의하면 개인에게는 아동자아상태(child ego state), 부모 자아상태(parent ego state), 그리고 성인 자아상태(adult ego state)가 각각 발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 자신의 성인 자아상태가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아동의 성인 자아상태가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Gordon(1975)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형태를 ‘너-메세지’와 ‘나-메세지’로 구분하였으며, ‘나-메세지’형태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促進的 意思疏通(facilitative communication)은 조력과정에서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해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잠재능력까지도 성장, 발달시키려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흔히 교육적 대화, 상담, 의사소통, 치료적 의사소통 등 여러 측면에서 개념화 된다(마정건, 1988). Rogers는 促進的 意思疏通의 개념을 분명히하고 促進的 意思疏通이 성격발달과 심리적 적용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대표적 학자이다. Rogers는 핵심적 인간관계변인으로 共感的 理解, 無條件的 尊重, 率直性的 태도를 助力者가 被助力者에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고 피조력자가 그것을 왜곡없이 지각하는 것

을 피조력자의 성격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促進의 人間關係變因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共感的 理解(empathic understanding)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지각하고 있는가를 상담자 자신의 개념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담자의 內的 準據體制(internal frame of reference)에 따라서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왜곡없이 의사소통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Rogers, 1962).

2) 無條件的 尊重(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Rogers(1961)에 의하면 無條件的 尊重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수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주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나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허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3) 率直性(genuineness)

Rogers(1961)에 의하면 率直性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Carkhuff(1969)는 촉진적 인간관계변인으로서 Rogers(1962)의 3가지 변인 즉, 共感的 理解, 無條件的 尊重, 率直性이외에 구체성(concreteness), 직면(confrontation), 자아개방(self-disclosure), 즉시성(immediacy)등을 제시하고, 촉진적 인간관계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며 이러한 7개의 촉진적 인간관계변인을 기초로 의사소통 혼련모형을 제시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ller(1971)은 부모의 言語的·非言語的 행동과 아동의 自我尊重感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솔직성과 아동의 自我尊重感은 유의있는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석현양(1983)은 청소년기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자아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 부모-자녀간의 의사전달형태를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손화희(1989)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自我尊重感 형성과의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愛情的이고 受容의일수록 아동의 自我尊重感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言語統制類型과 아동의 自我尊重感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현주, 1990)에서도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이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할 때보다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할 경우에 아동의 自我尊重感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정건(1988)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이진용(1990)은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自我尊重感과의 관련을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촉진적일 수록 청소년의 自我尊重感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自我尊重感 발달에 기여한다고 보여지는 모방효과와 반영효과 중에서 상대적 기여도가 더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어머니의 自我尊重感 변인을, 아동의 自我尊重感에 영향을 미치는 모방효과로서 설정하고,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 疏通 변인을, 아동의 自我尊重感에 영향을 미치는 반영효과로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自我尊

重感에 대한 어머니의 自我尊重感 및 促進的 意思疏通의 상관 관계를 살펴 보고, 이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 보고자 한다.

3. 研究問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自我尊重感和 아동의 自我尊重感 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인가?
- 2)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과 아동의 自我尊重感 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인가?
- 3) 어머니의 自我尊重感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 4) 아동의 自我尊重感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自我尊重感和 促進的 意思疏通의 相對的 寄與度는 어떠한가?

Ⅲ. 研究 方法

1. 研究對象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5, 6학년의 남녀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로 한다. 10~12세 정도의 아동들은 각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적 안정된 형태의 自我尊重感を 지니고 있다(Mussen et al, 1984). 또한, 이시기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인성특성이 뚜렷하게 형성된 시기(이광용, 1978)이므로, 아동의 自我尊重感を 측정함에 있어서 10~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測定道具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아동용 질문

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를 각각 구성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아동의 학년, 연령, 성별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과 아동의 自我尊重感を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어머니의 연령, 최종 학력, 한달 수입을 알아 보기 위한 문항과 어머니의 自我尊重感を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自我尊重感 檢査

본 연구에서 사용된 自我尊重感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SEI)를 김경연(1987)이 번안,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한다.

이 측정도구는 총 25문항이며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긍정적인 질문(4, 5, 8, 9, 10, 13, 17, 20, 22, 23)의 경우 '그렇다'는 1점, '아니다'는 0점을 주고, 부정적인 질문의 경우(1, 2, 3, 6, 7, 11, 12, 14, 15, 16, 18, 19, 21, 24, 25) '그렇다'는 0점, '아니다'는 1점을 주므로, 전체 득점 범위는 0-25점이 된다. 自我尊重感 측정 설문지는 부모와 아동에 대해 Coopersmith의 아동용 자아존중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다만 문구 중 일부를 성인에게 적합하도록 정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는 .80 이상이었다.

2) 意思疏通 檢査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khuff(1969)의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마정건(1988)이 제작하고 이진용(1990)이 아동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것을 사용한다. 이 측정 도구는 21문항의 질문지로 공감적 이해, 존중, 솔직성의 3개의 하위변인으로 되어 있다. 문항의 형식은 구체적인 대화상황에서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어머

니의 대화양식에 비추어서 다섯가지 수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변인별 문항배열상황은 다음과 같다. 공감적 이해에 대한 문항은 1, 4, 7, 10, 13, 16, 19문항이고, 존중에 대한 문항은 2, 5, 8, 11, 14, 17, 20문항이며, 솔직성에 대한 문항은 3, 6, 9, 12, 15, 18, 21문항이다. 응답에 대한 채점은 1수준 1점, 2수준 2점, 3수준 3점, 4수준 4점, 5수준 5점으로 점수를 주었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1점에서 105점까지가 된다.

3. 調査節次

본조사는 1993년 4월 16일부터 19일이며, 질문지 총 330부를 배포하여 그 중에서 252부를 회수하였다. 미회수 및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시킨 결과, 총 206쌍의 응답만이 연구에 이

용되었다.

4. 資料分析

본 조사에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 처리하였다. 즉,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비롯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 일원변량분석 및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研究 結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어머니의 특 성	어머니의 연 령	26세 ~ 35세	65	31.2
		36세 ~ 40세	116	56.30
		41세 ~ 45세	20	9.3
		46세 ~ 53세	5	2.0
		합 계	206	100.0
	어머니의 학 령	중졸 이하	49	23.7
		고졸	129	62.6
		전문대·대졸	27	13.2
		대학원 이상	1	.5
		합 계	206	100.0
	가정내 월수입	50만원 미만	14	6.9
		50만원 ~ 100만원 미만	86	41.7
		100만원 ~ 150만원 미만	53	25.5
150만원 ~ 200만원 미만		34	16.6	
200만원 ~ 250만원 미만		6	2.8	
250만원 이상		13	6.5	
합 계		206	100.0	

2. 어머니의 自我尊重感과 아동의 自我尊重感과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自我尊重感과 아동의 自我尊重感간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어머니의 自我尊重感과 아동의 自我尊重感간에는 유의한 正的 相關이 있었다($r=.3040$ $P<.0001$). 그러므로 어머니의 自我尊重感과 아동의 自我尊重感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自我尊重感을 연구한 Graybill(1978)과, Medinnus와 Curtis(1963)의 결과와도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兒童의 自我尊重感은 어머니에 대한 同一視에 의해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3.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과 아동의 自我尊重感

1)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과 아동의 自我尊重感과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과 아동의 自我尊重感과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의 수준에 따라 아동의 自我尊重感 사이에는 유의한 正的 相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336$, $P<.00001$). 즉,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自我尊重感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 兒童의 自我尊重感에 대한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의 영역별 回歸分析

아동의 自我尊重感에 미치는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 각 영역의 상대적 기여도를 重多回歸分析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영역별 회귀분석

	B 값	B의 표준오차(SE B)	R ²	Sig F
솔 직 성	0.33	0.13	0.13	0.03
공감적 이해	0.01	0.14	0.09	0.48
존 중	0.26	0.14	0.12	0.08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自我尊重感은 促進的 意思疏通의 하위영역 중에서 '率直性'영역($R^2=0.13$, $p=0.03$)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尊重' 영역($R^2=0.12$, $p=0.08$)과 '共感的 理解' 영역($R^2=0.09$, $p=0.48$)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促進的 意思疏通의 차이

어머니의 自我尊重感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自我尊重感에 대한 수준별 구분을 하였는데, 총 문항 25문항 득점 분포에 따라 5단계로 나누었다. 즉, 수준 1은 5점 미만, 수준 2는 6점~10점 미만, 수준 3은 11점~15점 미

4. 어머니의 自我尊重感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만, 수준 4는 16점~20점 미만, 수준 5는 21~25점이다. 그러므로, 수준이 높을 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이다. 이를 기초로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차이

source	D. F.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집단 간	4	6.68	1.67	3.25	.013
집단 내	199	102.16	0.51		
합 계	203	108.84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은 어머니의 自我尊重感에 따라 유의한 차이($p < .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追後 檢證으로 Duncan Test 實施 結果 어머니의 自我尊重感이 높을 수록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의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5. 兒童의 自我尊重感에 대한 어머니의 自我尊重感 및 促進的 意思疏通의 相對的 寄與度

아동의 自我尊重感에 대한 어머니의 自我尊重

感과 促進的 意思疏通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自我尊重感과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 모두 아동의 自我尊重感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R^2 = 0.14$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R^2 = 0.05$) 그 중에서도 아동의 自我尊重感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요인은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요인이었다($R^2 = 0.14$).

<표 4>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촉진적 의사소통의 상대적 기여도

	B 값	B의 표준오차(SE B)	R ²	Sig F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0.46	0.10	0.14	0.000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0.25	0.07	0.05	0.0007

이는 模倣的 效果를 갖는 어머니의 自我尊重感보다 反映的 效果를 갖는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이 아동의 自我尊重感 형성에 있어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V. 論 議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아신뢰 또는 자아확신의 모델이 됨으로써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 Coopersmith(1967)의 주장을 지지한다. 즉,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해서 모방효과로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이진용(1990)이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촉진적일 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어머니-자녀 간의 좋은 인간관계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 유형은 어머니 자신의 양육태도를 아동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해 반영효과로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Graybill(1978)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훈육을 하며, 어머니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지각한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어머니가 수용적이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각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촉진적 의사소통은 서로 개별적이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바람직한 양육이란 어머니 성격의 부분적인 개발이나 기술적인 습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인성의 성숙과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보다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 및 발달에 있어서 모방효과보다 반영효과가 더 의미있게 나

타난 것이다. 이는 Gecas, Calonico와 Thomas(1974)가 14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반영효과와 모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반영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집단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 결과를 기타지역에 까지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문지를 이용할 때 조사 대상 어머니들에게 직접적인 응답요령을 설명해 주지 못했고 조사상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촉진적 의사소통 측정을 위해서 사용된 질문지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타당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평가를 전적으로 반영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제한점들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지 이용법과 현장관찰법이 병행되어 더욱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둘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아버지, 형제, 또래, 학교 선생님 등 아동의 언어 환경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감,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

- 의 인성과의 관계: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연호(1981). 인간관계론, 서울:박영사.
- 서봉연·유안진(1983). 인간발달 재판, 한국방송통신대학.
- 석현양(1983). 가정의 의사전달 형태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화희(1989).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용(1978). 부자관계에 따른 남아의 인성특징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제3권.
- 이미정(1986).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용(1991).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rkhuff, R. R.(1969). *Helping & human relations*. Vol. I, II, New York:Holt, Rinehart & Winston.
- Cooley, C. H.(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W. H. Freeman.
- Coopersmith, S.(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2nd ed)*. Palo Alto, Calif: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Erikson, E. 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Vol. I, p. 1.
- Gecas, V., J. M. Calonico and D. L. Thomas (1974),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the child,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92, pp. 67-76.
- Gordon, T.(1975). P. E. 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New American Library.
- Graybill, D.(1978). Relationship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to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Psychology*, Vol. 100, pp. 45-47.
- Helper, M. M.(1958). Parental evaluation of children and children's self-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6, pp. 190-194.
- Jersild, A. T.(1960). *Child psychology:the self(5th. ed.)*. Englewood Cliffs, N. J.:Prentice-Hall.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dinnus, G. R.(1970).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Disturbed Adolescent Chil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75, pp. 98-105.
- Medinnus, G. R. and F. J. Curtis.(1963).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Self-Acceptance and Child Acceptanc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7, pp. 542-544.
- Miller, T.(1971). Communicative dimension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s they affect the self esteem of the chil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 Association, Washingt. D.C., Sept, 1971.
- Mussen, D.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6th. ed.)*. New York: Happer & Raw Pub.
- Rog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gers, C.(1950). The significance of the self-regarding attitude and perception In M. L. Reyment(Ed.), *Feeling and emotion*,the Mooseheart symposium (pp. 374-382). N.Y.:McGraw-Hill.
- Rogers, C.(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Houghton Mifflin.
- Santrock, J. W.(1989). *Life-span development (3rd. ed.)* Wm. C. Brown Publishers.
- Snygg, D. & Combs, A. W.(1949). *Individual behavior*.a new frame of reference for psychology. New York:Harper.
- Tocco, T. S., & Bridges, C. M. Jr.(197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concept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3(4), 161-179.
- Waston, R. J. & Lindgren, H. C.(1979). *Psychology of the child and adolescent. 4th ed.* New York:Macmillan Publishing Co. Inc.